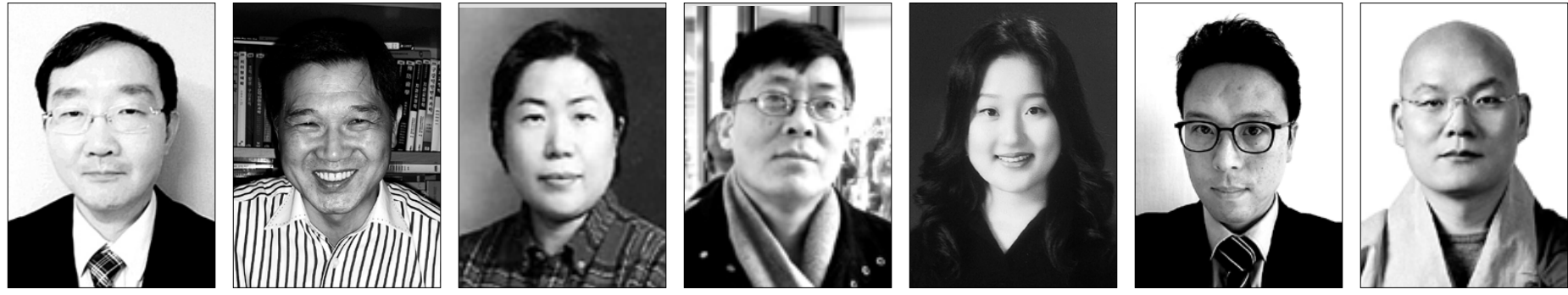


박사는 응용불교·석사는 교학 강세



이승곤 박사 김광수 박사 전미옥 박사 박재용 박사 김지연 박사 안필섭 박사 보경 스님

동국대, 상반기 '불교박사' 7명 배출 불교경제·인지과학 등 저변 넓혀

올해 상반기 동국대에서 7명의 불교 박사과 22명의 석사가 배출됐다. 동국대는 2014년 봄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자 중 불교관련 박사과 이승곤, '청정도론의 점교적 교육체계 연구-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수행법을 중심으로'(응용불교학) △김광수, '시장경제에 대한 불교경제학적 연구(응용불교학) △전미옥, 초기불교의 지각이론 연구-인지과학적 해석을 중심으로(응용불교학) △박재용, 5심(心)에 관한 연구-식(識)의 구기(俱起)와 상속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불교학) △김지연, '석가하연론'의 주석적 연구-해동소와 '현수'의 의'의 비교를 중심으로(불교학) △보경 스님, 수선사 연구(선학) △안필섭, '전철학강요'에 개설된 요가사상 연구(인도철학) 등 7명을 발표했다.

박사 논문에서는 응용불교학 분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법에 대한 교육체계 연구를 비롯해 인지과학과 불교의 접점, 불교시장경제학 등에 대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먼저 김광수 박사는 '시장경제에 대한 불교경제학적 연구'에서 '수행생활 공동체 운동'을 통해 시장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는 대부분 대자본의 무한팽창에서 기인한다"며 "자본의 집중은 생계경제를 파괴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생산·소비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며 동시에 불교적 수행이 전제된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박사는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적은 물질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불교적 가치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미옥 박사는 '초기불교의 지각이론 연구'에서 인지과학과의 접점을 고찰했다. 전 박사는 "감각과 지각은 동반관계에 있으며 우리는 지각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아관념을 생성시킨다"고 분석했다. 전 박사는 또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근원인 무명의 근저에는 자아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항상 자아가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이는 지각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념일 뿐"이라며 "지각과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여러 개념을 알 수 있으며 인간 존재의 비실체성을 알 수 있고, 또 무아를 이해해 번뇌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불교 석사 학위수여자는 △오진영(Kaliyani), '문궤소(文軌疏)'의 인명관 연구 △박은희, 《화엄경》 현수품의 신(信) 연구 △범허 스님, 《대승기신론》의 지관수행에 관한 연구 △무념 스님, 《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사상의 연구 △각천 스님, 남북전야비달마의 방편도수행 7단계 비교연구 △법광 스님, 규봉종일의 흥중중 비판 연구-화엄의 4법계관을 중심으로 △범우 스님, 도봉유문(道峰有聞) 법성계과주(法性偈科註)의 화엄사상 연구 △혜인 스님,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인식연구 △서은희, 신라 성립 경전 연구-《금강삼매경》을 중심으로 △정우 스님, '법계도기총서'의 무측사상 연구 △도우 스님, 용성선사의 임종행의(臨終行儀) 연구-임종결(臨終訣)을 중심으로 △이정현(보리행), 선가귀감의 선사상과 간화수행법 연구 △견명 스님, 아쇼카왕과 제3결집의 위상에 관한 연구-까타유투 주석서의 서문을 중심으로 △현욱 스님, 《부설전》의 구도와 선적 체계 연구 △박보근, 고려시대 금속제 탐 연구 △최미리, 조선시대 '불설대보부모은중경' 판화 연구 △박진호, 황룡사지 구층목탑의 복원 연구 △조복, 조선 후기 사천왕상 연구 △법탁 스님, 용수 '하론'의 정견에 관한 연구 △이수연, 영철작(靈哲作) 화계사 명부전 조상 연구 △송자민, 운해작(雲惠作) 해남 서동사 목조삼세불좌상 연구 등 22명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왕흥사지 발굴성과 발표

마야부인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인물상이 부여 왕흥사 터에서 발굴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2월 2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부여 왕흥사 터에서 지난해 수습한 소형 청동인물상을 공개했다.

청동인물상은 높이 6cm에 폭 2.5cm인 소형으로 강당지 고려문화층 중 맨 아래층에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비파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조각상의 재료는 구리, 주석 합금으로 판명됐다.

연구소는 "이와 비슷한 인물상은 출토 사례가 전혀 없고, 고려시대 문화층 최하층에서 출토된 까닭에 제작된 시기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시대 이전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삼국시대, 예컨대 왕흥사가 창건된 백제시대 유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동 인물상에 대해 연구소는 "석가모니를 출산하는 마야부인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자세와 발밑까지 내려오는 주름치마를 입은 복식은 국내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다"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인물상의 옷차림 양식으로 보아 출처는 천인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왕흥사지는 577년 백제 위덕왕(威德王, 재위 554~598)이 봉안한 사리장엄(舍利莊嚴)이 출토된 사찰 유적으로 최근 강당지와 동·서 건물지, 강당 좌우에 배치된 건물지, 사역 서편 건물지 등의 규모와 내부구조, 축조과정 등이 확인됐다.



왕흥사 청동인물상

제9기 한국정토학회장에 신규탁 교수

8월 조상신앙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등 계획 발표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한정식 산우회에서 한국정토학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신규탁 교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정토학회 회장직을 맡게 주셔서 감사하다"며 "역대 회장님들의 노력을 본받아 정토학이 폭넓게 연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9기 회장단으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 스님이 수석부회장,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8대 회장을 맡았던 성운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학술지 투고 논문들이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돼 학술세미나가 갈수록 변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본 학회가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해야”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미술사 41집>서 교류현황 고찰

문화재청이 고구려·발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지역 고구려·고려 불교문화재에 대한 교류를 통한 남북교류를 제시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술사연구회가 발간한 <미술사 41집>에서 '불교문화재 관련 남북교류의 과제' 논문에서 북한 불교문화재를 지역별, 유형별, 사찰별로 분류하고, 남북 불교문화재 교류의 방향을 모색했다.

최 교수는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남북 불교문화재 교류 활동을 평가한 뒤, 문화재와 관련한 남북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최 교수는 "북한 지역에는 고구려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재가 다양 전제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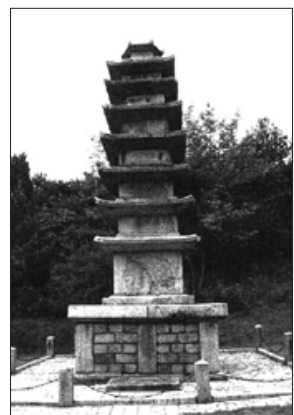
다. 이들을 중심으로 고구려 불교조각이나 고려시대 불교미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 훌륭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동안 남북 불교문화 교류의 시도로 사찰 복원 지원사업을 꼽았다. 최 교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 14동을 복원한 일이나 전태종단에서 영통사 복원 공사 단정을 지원한 일은 불교미술과 문화재에서 매우 의미있던 교류였다"며 "특히 2004년 발족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회에 이은 학자들의 교류로 남북한 문화교류가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성은 교수는 "먼저 남북 연구자들의 교류가 가능한 정치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자들의 교류가 시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불좌상'의 범'



개성고려박물관 소장 '현화사 칠층석탑'



개성고려박물관 소장 '적조사지 철불좌상'

작되고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와 유적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등 지적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성지역 △금강산 지역 △평양지역 고구려 불교유적 △발해지역 문화재조사 등 남북한 공동 조사를 비롯해 불교미술사 공동연구, 남북한 불교문화재 순회 전시 등을 문화재 교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남북 공동관심 주제인 불교문

화재에 대한 조사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일체감을 이끌어 내는 배경을 형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남북 문화재 교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최 교수가 이번 논문을 통해 밝힌 북한지역 불교문화재는 박물관 소장 문화재로 불상 60점, 공예품 22점, 서지 1점, 석조 15점, 회화 10점이며, 사찰 소장 문화재는 평양 광범사, 개성 영통사 등 44곳에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흥사서 마야부인 추정 청동인물상 발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왕흥사지 발굴성과 발표

마야부인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인물상이 부여 왕흥사 터에서 발굴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2월 2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부여 왕흥사 터에서 지난해 수습한 소형 청동인물상을 공개했다.

청동인물상은 높이 6cm에 폭 2.5cm인 소형으로 강당지 고려문화층 중 맨 아래층에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비파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조각상의 재료는 구리, 주석 합금으로 판명됐다.

연구소는 "이와 비슷한 인물상은 출토 사례가 전혀 없고, 고려시대 문화층 최하층에서 출토된 까닭에 제작된 시기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시대 이전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삼국시대, 예컨대 왕흥사가 창건된 백제시대 유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동 인물상에 대해 연구소는 "석가모니를 출산하는 마야부인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자세와 발밑까지 내려오는 주름치마를 입은 복식은 국내에서는 출토된 사



신규탁 교수가 전임회장 성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제9기 한국정토학회장에 신규탁 교수

8월 조상신앙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등 계획 발표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한정식 산우회에서 한국정토학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신규탁 교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정토학회 회장직을 맡게 주셔서 감사하다"며 "역대 회장님들의 노력을 본받아 정토학이 폭넓게 연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9기 회장단으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 스님이 수석부회장,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8대 회장을 맡았던 성운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학술지 투고 논문들이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돼 학술세미나가 갈수록 변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본 학회가

행복정토 복지사회를 발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축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토학회는 8월 인천 흥륜사에서 조상신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방대학원대, 동양화 전공 학사과정 신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고광용)는 선묵화(禪墨畵)를 중심으로 한 동양화 전공의 학사과정이 신설한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3월부터 학점은행제 주말반과정으로 '동양화 전공'(4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신입생 편입생 20명을 모집한다.

올해 새로 동양화전공 학사과정에 대한 과정을 인가받은 동방대학원대학교는 동양화(선묵화), 서예(캘리그래피), 전각, 문

인화, 드로잉 등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2월 27일까지 1차 모집이 진행되며 2월 28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동양화 전공 과정에는 선묵화로 유명한 담원 김창배 화백을 비롯해 우송현, 김영삼, 최은철, 하영준, 이영철 화백과 홍익대 박사출신의 교수들이 강의를 맡으며 수업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7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7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8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불교의식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교육과정 포함사항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 (시련에서 ~ 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 법

- 특 강 : 흥고 ● 교육기간 : 1년 과정
- 대 상 : 스님, 법사, 제기불자
- 개강일시 : 2014년 3월 7일 첫째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 오후 4시까지 제공
- 교육문의 : 회장 관희스님 010-8290-6623
- 교육관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 (중앙불교대학 3층)
홈페이지 www.송강사.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